

“신안을 꾸지뽕 의료관광 메카로”

고향에서 성공 신화 쓰는 장웅조 박사

재배단지 10만㎡ 조성·음료 출시 식약청 인증

“신안을 꾸지뽕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신안이 고향인 정치경제학 박사 출신 장웅조(48) ‘신안 꾸지뽕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포부다.

2년 전에 해도 잘 대표의 이런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실현 가능성성이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늘어났다.

전국 최대의 재배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을 받은 고기능성 꾸지뽕 음료를 만들어 내는 등 꾸지뽕 메카 프로젝트를 하나, 둘 완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꾸지뽕 연구와 가공식품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목포해양대 벤

처센터에 입주했다. 꾸지뽕 주출물 연구와 꾸지뽕 송편, 꾸지뽕 간고등어, 꾸지뽕 소금 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장 대표는 안좌, 팔금 등 4개면에 전국 최대인 10만㎡의 꾸지뽕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3만 그루의 꾸지뽕 나무가 자라고 있다. 앞으로 10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장 대표가 한 벤처회사와 손을 잡고 최근 출시한 꾸지뽕 음료(상표명 ‘이눌린 플러스’)가 화제다.

이 음료는 열매, 가지, 잎을 12시간 달이고 누에고치 수분까지 첨가해 만든다.

장 대표는 “꾸지뽕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이 제품은 당뇨, 콜레스테롤 개선



장 대표가 자신이 개발한 꾸지뽕 음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열매를 넣어 만든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된 기존 제품은 값이 비싼 열매 대신 나무만 달여 만든 것이다.

장 대표는 “꾸지뽕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고기능성 꾸지뽕 음료 사상 처음으로 식약청 인증을 받았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목포해양대 벤

처센터에 입주했다. 꾸지뽕 주출물 연구와 꾸지뽕 송편, 꾸지뽕 간고등어, 꾸지뽕 소금 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장 대표는 안좌, 팔금 등 4개면에 전국 최대인 10만㎡의 꾸지뽕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3만 그루의 꾸지뽕 나무가 자라고 있다. 앞으로 10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장 대표가 한 벤처회사와 손을 잡고 최근 출시한 꾸지뽕 음료(상표명 ‘이눌린 플러스’)가 화제다.

이 음료는 열매, 가지, 잎을 12시간 달이고 누에고치 수분까지 첨가해 만든다.

장 대표는 “꾸지뽕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고기능성 꾸지뽕 음료 사상 처음으로 식약청 인증을 받았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목포해양대 벤

영광에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

전남도·군·자동차부품연 업무협약 체결

대마산단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전기자동차 부품사업 등을 연구할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이 전남 영광에 설립된다.

전남도는 17일 도지사 임무실에서 박종근 지사,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정기호 영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

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은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관련 업체가 투자해 설립한 기구로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협약을 통해 이를 단체와 기관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연구개발, 기업 지원, 국가사업 프로젝트 공동 유치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광군은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남

분원(e-모빌리티지원센터)을 설립

서남해 항로 안전 항해 파란불

80억 들여 등표 등 설치

전남 서남해 항로 안전 항해에 파란불이 켜졌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올해 80억원을 들여 등표 등 해양교통시설 사업을 벌인다. 사업비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광군 낙월면 소재 안마도 남서쪽 등표 등 7개소를 신설하고 낮은 항로 표지시설 2개를 보수할 예정이다.

대흑산도항 방파제 등대는 등대 고유기능에 지역 특성을 살린 ‘조형 등대’로 개량해 볼거리도 제공한다.

목포항만청은 유인등대 6개소, 무

인등대 163기 및 등표 49기, 등부표 89기 등 총 363개의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다.

류액열 해양교통시설과장은 “해역 특성상 수중 암초 등 위험요소가 많은 서남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양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과(061-380-3172)나 사업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준석기자 kjs053@kwangju.co.kr

담양 사회단체 보조금
3억 2000만원 지원

담양군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원활 경우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31일까지 사업별 관련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치행정과(061-380-3172)나 사업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장흥군과 중국 하얼빈시 아성구 관계자들이 하얼빈에서 상호 관광교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장흥군-中 하얼빈시 관광교류 손잡다

장흥군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아성구가 관광교류에 손을 잡았다

장흥군이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아성구와 ‘물축제’와 ‘얼음축제’라는 인연을 통해 상호 ‘선린우호’ 협력 협정(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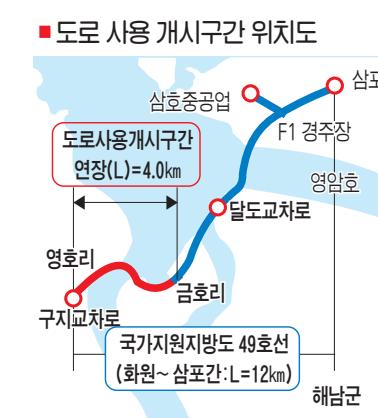
군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장흥이 사랑하는 김·매생이 등 농수산물을 무역거래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아성구는 국내 동쪽 끝에 위치한 지

역으로 인구가 60만명에 식품가공, 전기기계산업이 발달했고 특히 겨울철 레저관광이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해남 영호리~금호리 도로 오늘 개통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와 산이며 금호리를 잇는 4km 도로를 18일 개통한다.

전남도는 해남군 화원면과 영암군 삼호읍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중 영호리~금호리 구간을 조기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도로는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49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도로 중 일부 구간이다.

도로 개통으로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 1.1km가 개선되는 등 양 지역 소요 시간 15분이 단축된다.

해남 화원~영암 삼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12km로 사업비 1천780억 원을 들여 2005년 7월에 착공했으며 올해 연말께 전 구간이 완공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전남 서남부 지역과 목포를 연결하는 중심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교육을 실시해 유기 가공식품 인증 절차와 관련 시책을 소개하고 우수사례와 마케팅 전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무농약·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늘고 있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 가공식품 생산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 유기 가공식품 인증 전국 최다

전남 지역에 유기 가공식품업체가 가장 많이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1월 현재 전국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289곳 중 전남이 87곳으로 30%를 차

지, 전국 최다였다. 전남도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해 지난 해 도비 5500만 원 등 2억 8800만 원을 105개 업체에 지원했다.

올해도 68개 업체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권

역’을 실시해 유기 가공식품 인증

도로 사용 개시구간 위치도

도로시운개시구간 연장(L)=4.0km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화원~삼포간) L=12km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화원~삼포간) F1 경주장

삼포

영암호

달도교차로

구지교차로

금호리

영호리

화원면

금호리~영호리 도로 개통

상무랜드공인증개사

토지(매매)

• 용도·

전원주택, 페수원

연수원, 절, 현수미을 등

• 면적·

16.789평(평방미터)(약 5.078평)

• 위치·

백암면 남지(정지현호위)

• 대표주민·

장성군 북면 하얼빈시

쌍용리 7-14번지에 17필지

• 매각금액·

5억 5천만 원

• 설계·

위 토지는 장성 백암남지(남지)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 가능한 토지로서

차량과 우편기의 자리를 얻어내고 갖추고 있는 편리로 본토에서 남쪽으로 장성 호가 내려다보이며 본토에서의 좌우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 7. 전 이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 있으나 지금은 디스 토목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1. 본토는 한옥으로 적합하며

2. 또한 전원 도장을 겸한 가족묘지

3. 영암원이 전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4. 조용한 절기 도로

5. 회사의 연수원으로 적합합니다.

6.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 트럭은

마일대로 가능합니다.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